개요

Ⅰ 창업법인 데이터

- 데이터 : ㈜한국기업데이터 창업법인 수 자료
- 산업분류: 비즈니스서비스업, IT융합, 금융업, 콘텐츠, 관광·MICE,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도심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 외 기타산업의 총 10개 산업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및 5대 권역(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도심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종로, 중구, 용산

- 법인 창업동향은 ㈜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법인 수 자료를 이용한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 ㈜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법인 수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법인 수(국가승인통계)는 차이가 있음
  - 이 연구자료의 창업법인 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법인 수보다 2016년에는 311개가 많고, 2017년에는 346개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근소한 차이가 있음

연도	기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6	중소벤처기업부	2,571	2,264	2,876	2,766	2,559	2,843	2,660	2,664	2,301	2,659	2,587	2,748	31,498
	한국기업데이터	2,596	2,271	2,866	2,766	2,607	2,935	2,703	2,670	2,316	2,659	2,604	2,816	31,809
2017	중소벤처기업부	2,514	2,570	2,859	2,544	2,425	2,859	2,543	2,597	2,632	1,920	2,791	2,646	30,900
	한국기업데이터	2,570	2,613	2,923	2,615	2,482	2,897	2,589	2,592	2,676	1,975	2,838	2,476	31,246

Ⅰ 서울 법인창업지수

- 서울시 소재 법인 창업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보여주는 지수로 산업별 창업법인 수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매월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창업법인 수의 변화를 측정
- 데이터 : ㈜한국기업데이터 창업법인 수
- 가중치 : 산업별 창업법인 수 대비 전체 창업법인 수(2015년, ㈜한국기업데이터 기준)
- 산업분류 및 공간적 범위: 창업법인 데이터와 동일
- 기여도 : 종합지수증감률 $= \sum_i$기여도$_i$ 기여도$_i$=(△하위지수$_i$ / △종합지수) × 종합지수증감률 , i는 각 산업을 의미

  하위지수(산업 각 부문)가 종합지수의 증감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줌

[서울 법인창업지수의 한계]

-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서울의 창업 증감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사업체의 창업만 다루고 자영업자들의 개인사업체 창업은 다루지 못하고 있어 개인사업체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창업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2016년 창업한 서울 내 사업체 중 개인사업체의 창업이 78%, 법인사업체의 창업은 21%로 법인 창업만으로는 전체 창업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짐
- 다만 창업 법인의 종사자 수는 전체 창업 사업체 종사자의 38%에 달하고 있어 법인사업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개인사업체보다 뛰어남. 또한, 기존 법인을 포함한 서울시 법인사업체의 종사자가 서울시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67% 규모임을 감안하면 법인 창업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고용 측면에서 중요하며, 법인 창업에 의한 고용 창출은 전체 고용의 향배를 알려주는 선행지표 역할도 한다고 할 수 있음

•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계절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원계열 지수의 전년동월비 증감을 중심으로 분석함. 그러나 명절이 있는 달은 설·추석 명절의 월간 이동에 의한 효과가 원계열 지수의 분석결과에 포함되므로 원계열 지수와 함께 전체 지수에 대한 계절조정치도 참고지표로 제공

Ⅰ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추정)

•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매월 창업된 법인에 의한 일자리 창출 규모를 신속하게 추정하기 위한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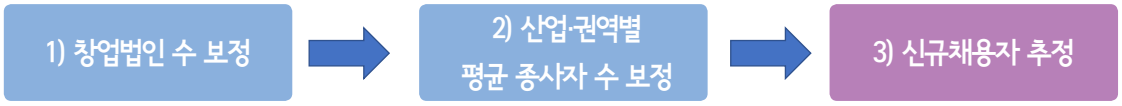
• 추정 방법

법인 창업에 따른 산업별·권역별 일자리 창출 =

산업·권역별 창업법인 수[보정] × 산업·권역별 평균 종사자 수[보정]

(※ 창업법인 수는 ㈜한국기업데이터 2018년 월별자료를 보정한 수치, 산업·권역별 평균 종사자 수는 최근 2개년 서울사업체조사 자료에서 보정한 수치)

-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추정은 한국기업데이터 창업법인 수를 보정한 수치와 최근 2개년 서울사업체조사 자료에서 보정한 창업법인 평균 종사자 수를 곱하여 사용
-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은 다음과 같은 2단계의 보정과정을 거침



1) 1단계: 창업법인 수 보정

• ㈜한국기업데이터 2018년 월별자료 사용. 그러나 한국기업데이터 창업법인 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사업체조사의 창업법인 수보다 과대추정됨

- 한국기업데이터는 창업된 법인이 당해연도에 폐업되는 경우를 포함
-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포함

• 과대 추정 우려가 있는 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법인 수를 보정하는 방법

- 산업별·권역별 사업체조사의 법인 사업체 수 대비 한국기업데이터의 법인 수 비율을 최근 2개년에 대해 연도별로 산출

→ 산업별·권역별 창업법인 수(보정) = 최근 2개년 법인 수 비율의 이동평균 값 × 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법인 수

※ ㈜한국기업데이터와 사업체조사 자료는 공표시점에서 2년의 시차가 존재

2) 2단계: 산업·권역별 평균 종사자 수 보정

• 최근 2개년 서울사업체조사 자료 사용

• 채용 규모가 큰 소수의 창업 법인에 의한 과대추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를 제외

• 각 연도의 산업별·권역별 창업법인의 평균종사자 수를 구한 후 2개년 이동평균을 산출하여 사용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추정에서의 한계]

• 서울 소재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 수를 집계한 통계청 및 서울고용노동청의 고용동향과 다를 수 있음